## 국가명 : 시리아 Syria

|  |  |  |
| --- | --- | --- |
| **주요**  **정보** | WWL2020 박해 순위 | 11위 |
|  | 박해지수 | 82점 |
|  | 작년 박해 순위 | 11위 |
|  | 지역 | 중동/ 북아프리카 |
|  | 박해 유형: | 이슬람의 억압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독재적 편집증  집단과 민족의 적대감 |
|  | 박해 정도 | 극심 |
|  | 전체 인구 | 18,499,000명 |
|  | 기독교 인구 | 744,000 명Johnson T M and Zurlo G A,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April 2019). |
|  | 주요 종교 | 이슬람 |
|  | 정부 | 권위주의 대통령 공화국 |
|  | 지도자 |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
| **세부**  **사항** | 영역별 박해지수 | 사생활: 13.5 - 매우높음 가족생활: 14.2 - 극심 공동체생활: 13.0 - 매우 높음 국가생활: 13.9 - 극심 교회생활: 14.4 - 극심  폭력: 12.6 - 극심 |
| **설명** | 시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이  왜 박해를 받는가? | 사회적 노출로 인해, 전통교회의 지도자들이 납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 복음주의,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도 서구적인 성향, 분열, 리더십 부족,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줄 선교사가 없어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급진 이슬람 단체들이 통제하는 구역에서 대부분의 전통교회들이 철거되거나 이슬람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고백은 금지되었으며 교회 건물이나 수도원은 보수나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곳에서는 전쟁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감시가 적었지만 정부의 입지가 강해지면서 통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단, 교회,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명성은 아사드 대통령과 싸우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들이 직면하는 박해나 억압의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들은 특히 가족으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그들의 개종은 가족들에게 큰 불명예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 이슬람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
|  | WWL 순위가 바뀌었는가? |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압박과 폭력 점수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보고가 적었기 때문에 다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대비 전체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
|  | 시리아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교회 지도자들이 납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그들의 옷(사제복) 때문에 매우 알아보기 쉽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몸값 때문에 납치당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것이 수치심의 큰 원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슬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MBB)은 가족들에게로 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 중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지역 교회 파트너들은 12,000명의 취약 가정을 위해 생필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이야기 |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남편/아버지가 납치된 지나와 그녀의 아들 아포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2009년에 소개되었습니다.  **마알룰라 마을이 성공적인 봉제 공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방 안은 오버록과 플랫베드 재봉틀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성들이 이 공장에서 남녀의 속옷을 재봉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예수와 마리아 수도원과 오픈도어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은 상당한 월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 창출 프로젝트 덕분에 여성과 가족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  | 현지 성도의 말 | 희망 학교의 관리인이자 시리아 북부, 알 하사카 시에 있는 복음주의 연합교회 성도인 나지라는 2019년 10월 터키 폭탄테러에서 탈출한 기독교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라스 알 아인과 다르바시야에서 쫓겨난 45명 정도의 기독교 가정과 탈 알 하부르에서 온 몇 가족을 돕고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폭탄들이 떨어졌었지만 지금은 멈췄습니다. 그 가족들은 여러분의 도움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제가 패스트리 빵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
|  | 오픈도어는  시리아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 오픈도어는 현지 교회가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리더십을 강화하고 목회를 위한 많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서사역 : 성경, 학습성경, 어린이 성경, 신약, 기독교 서적  · 지도자를 위한 제자훈련  · 청소년 리더를 위한 전반적인 리더십 훈련  · 빅픽처 교육  · 시리아 여러 지역교회의 요청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훈련  ·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 지역 교회와 제휴하여 많은 시리아 크리스천 IDP(국내난민)들을 돌보고 구호품을 제공하며 그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재활 프로그램  · 시리아 교회를 통해 시리아내 이라크 크리스천(시리아 내전 이전에 시리아로 망명했던 이들)을 지원하고, 시리아 내 소수민족 지원  · 초교파 컨퍼런스를 후원함으로써 여러 교파 사이에 다리 놓음  또한 오픈도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리아의 특정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요청 및 전반적인 시리아 상황을 위한 기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
| **시리아**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 후원 | ·취약한 한 가족의 겨울나기를 위한 보조식품 팩과 연료 지원- 44$  ·2명의 크리스천에게 의료 지원 -60$  ·직업훈련과 대출을 통한 여성가장 생계 창업 지원 -565$ |
|  | 기도 | "실향한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아프린에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고 아프린 시에서 온 쿠르드인 신자 레바르는 말합니다. 그는, “교회는 문을 닫았고, 교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을 기도해주세요. 서로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적과 맞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타키아에 있는 교회의 하빕 칼루프 목사가 부탁합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원수의 계획에 맞서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미슐리에 있는 ‘얼라이언스(Alliance) 교회 ‘ 신관 건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재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여러차례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더이상 공사를 막지 않도록 기도주세요"라고 조지 무쉬 목사님이 부탁했습니다.  **시리아를 위한 기도**  *하느님, 우리는 시리아의 평화를 원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끝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옵소서.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교회, 우리의 가족을 강하게하여 그들이 당신의 희망을 그들의 공동체 속에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
| **참고** | 정책 권고 |  |
|  | 사진 | 조지 바스마지는 32세의 싱글 여성으로 알레포에서 7살 난 아들 아브라함 '아포' 베이둔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남편 로버트는 2013년 5월 15일 극단주의자들에게 납치됐다가 실종됐습니다. 이 가족은 ‘희망의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